

2019 서순실 심방 본풀이 채록

천지왕본풀이

초감제>들어가는 말미

천도천아(天都天皇)~, 지도지왕(地都地皇), 인도인왕(人都人皇), 상간지오룬지법(三綱五倫地法)으로~ 천신기는 지낫츰고,¹⁾ 흑신기는 지드투고~,²⁾ 천지이망주³⁾ 하늘에 칭칭허게 신수평⁴⁾ 잇십네다~.

삼버릿줄⁵⁾ 줄싸메나~ 데통기는 소통기, 지리기, 양산기~, 줄전나부⁶⁾ 드레⁷⁾ 놓고 안느로는~ 비저남은⁸⁾ 상당클,⁹⁾ 계수남은¹⁰⁾ 중당클, 준지남은 하당클, 촌실 7똥¹¹⁾ 오리베로~ 말 귀 7치¹²⁾ 네 귀 줍쑥¹³⁾ 메영 팔만금세진(八門金蛇陳)을 치엿습네다~.

안느로는 제주 큰굿 십삼호(十三號) 몸을 받은 연양당주¹⁴⁾ 삼시왕~ 삼하늘 남천문밖 유정성(柳政丞) 띄님아기 고엿 선성(先生)님~ 어간(於間)허난 열두 본풀이로,

초감제>날과 국 섬김

날(日)은 어느 날~, 들(月)은 어느 들, 금년(今年) 해는 기해년(己亥年)~ 들은 갈라, 오동짓돌 오널 초오셋날 이제 청헌 설연(設筵)허썬, 헤튼국은 돌튼국 주리(周圍) 팔만 십이 제국~ 강남(江南) 들어 천저국(天子國)~ 일본(日本) 들어 주년국(周年國)입네다.

우리 국(國)은 천아해동(天下海東) 대한민국(大韓民國)~은 첫 서울 송테조(宋太祖) 개국(開國)허고, 둘썬 시님 서울~, 셋썬 한성(漢城) 서울, 넷썬 웨정(倭政)은~ 삼십육 년(三十六年), 다섯 썬 체는 조부올랑 상서울 마련허고, 안동방궐, 자동방궐, 먹자골은 스박궐~, 모시정궐, 불탄데 궐입네다~.¹⁵⁾ 경상도(慶尙道)는 칠십칠 관~, 전라도(全羅道)는 오십삼 관, 충청도(忠淸道)는 삼십삼 관, 일제주(一濟州)는 이거제(二居第)~, 삼남해(三南海)는 스진도(四珍島), 오강와(五江華)는 육관도(六莞島)서~, 그 중 제일 큰 섬은 제썬네다.¹⁶⁾ 저 산 압은¹⁷⁾ 당오벽(堂五百), 이 산 압은 절오벽(一五百), 어시생(御乘生)은 당돌머리~,¹⁸⁾ 아흔아홉(九十九) 굴버리~,¹⁹⁾ 혼 골 부족

1) 지낫츰고: 낫추고.

2) 지드투고: 돛우고.

3) 천지이망주: 큰대를 세우는 법.

4) 신수평: 신이 내려와서.

5) 삼버릿줄: 큰대를 묶는 세 갈래의 줄.

6) 데통기는 소통기 지리기 양산기~ 줄전나부: 큰대를 장식하는 기메의 여러 종류.

7) 드레: 다리(橋). 신이 내려올 수 있는 통로.

8) 비저남은: 비자(樵子)나무는.

9) 상당클: 굿을 할 때 제장 벽의 상단에 달아매는 선반으로 신들이 좌정하는 장소.

10) 계수남은: 계수(桂樹)나무는.

11) 7똥: 같은.

12) 귀 7치: 귀 같이.

13) 줍쑥: 무엇이 튀어나와 솟은 모양.

14) 연양당주: 당주 심방이 맹두 조상을 모시는 장소.

15) 안동방궐 자동방궐 먹자골은 스박궐 모시정궐 불탄데궐입네다: 서울의 옛 지명(地名)입니다.

16) 제썬네다: 제주입니다.

17) 압은: 앞은.

18) 당돌머리: 어승생의 동쪽에 있는 봉우리로 '아흔아홉골'이라고도 함.

19) 굴버리: 산 위에 우뚝하게 팬 곳 분화구(噴火口).

허난 범도 왕(王)도 곰도 못 난 섬입네다. 산은 갈라 할로영산(漢拏靈山) 땅은 금천~ 노기진 땅,²⁰⁾ 물은 황해수(黃海水-ㄴ)데 연평(永平) 팔년(八年) 모흥굴(毛興穴)²¹⁾ 고량부(高良夫)는 삼성왕(三姓王)이 도업허고~, 향파두리 짐통경(金通精)~ 만리토성(萬里土城) 둘러오난, 정이(旌義)²²⁾ 정당~, 이십칠 도 데정(大靜)²³⁾ 일경 삼십팔 련 주(州)이 목안(牧內)²⁴⁾ 팔십여 리, 옛날은~ 정이고을 원님 살고, 데정 고을 현감(縣監) 살고, 주이 목안 판관(判官) 살고, 명월(明月)은~²⁵⁾ 만호(萬戶) 살앙 삼고을 스관장을 살앗습네다. 옛날 섬도 켜(-島字)는 질도 켜(-道字)로 바꾸고~, 질도 켜는 이천육년(二千六年) 칠월(七月) 일일(一日) 제주특별자치도(濟州特別自治道)~ 제주시(濟州市)는 서귀포시(西歸浦市) 읍면동(邑面洞)을 갈랑 제주시는 사라봉(沙羅峯)~²⁶⁾ 제주큰굿보존회²⁷⁾ 사무실로,

초감제>연유담음

어주에 삼녹거리~ 서강베포 땅을 유저생인 질 팽저생인 질입네다~. 유저남은²⁸⁾ 비여당~²⁹⁾ 마흔으덥(四十八) 초간주를 설련(設筵)허고, 팽저남은³⁰⁾ 비여다가 서른으덥(三十八) 이간주를 설련허고~, 신평남은³¹⁾ 비여당 스물으덥(二十八) 하간주를 설련허난, 브름 부난 브름 뚜벽 막고 뜻 도난 뜻 도벽을 막고~, 동산세별 신연 상간주~ 연양당주 육고비~³²⁾ 동심절(同心結)은 고비 첩첩 눌런 마흔으덥 모람장~, 서른으덥 빗골장, 스물으덥 고무살장, 솥솥도리³³⁾ 고삼 빗전~³⁴⁾ 브름 부난 브름 뚜벽 막고 뜻 도난 뜻 뚜벽을 막고 동산세별 신연 상간주~ 연양당죽집을 무언 제주큰굿보존회 사무실로 초뻔³⁵⁾ 녹음은 오용부 즈순(子孫)이~ 자료 냉기고,³⁶⁾ 두 번째는 김돌산~ 즈순이 자료 냉기고, 오늘은 신이성방³⁷⁾ 서씨로 신축생입네다~ 오늘부터 천지왕 본풀이~, 열두 본풀이를 허저십니다예-.

천지왕본풀이>본풀이

하늘 차지는³⁸⁾ 천지왕(天地王)님~, 땅 차지는 지부왕(地府王)~ 총명부인(聰明婦人)입네다. 천지왕님이~ 지부왕에 네립데다~. 지부왕 총명부인 가난(艱難) 공서 살았구나~. 밥 훈 상

20) 노기진 땅: 아주 좋은 땅.

21) 모흥굴(毛興穴): 탐라건국신화로 알려진 삼성신화에서 삼신인이 솟아났다는 곳. 삼성혈(三姓穴).

22) 정이(旌義): 조선시대 제주도의 행정구역인 삼읍(三邑) 가운데 하나 제주도 동남부 지역을 포괄함.

23) 데정(大靜): 조선시대 제주도의 행정구역인 삼읍(三邑) 가운데 하나 제주도 서남부 지역을 포괄함.

24) 목안(牧-) : 제주목의 안 '제주목'은 조선시대 제주도의 행정구역인 삼읍(三邑) 가운데 하나 제주도 북부 지역을 포괄함.

25) 명월(明月)은: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는.

26) 사라봉(沙羅峯)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봉우리.

27) 제주큰굿보존회: 제주큰굿보존회.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제주큰굿을 두이레인 열나흘 동안 이어지는 큰 굿으로 우리나라 굿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음.

28) 유저남은: 유자나무는.

29) 비여당: 비어다가.

30) 팽저남은: 팽나무는.

31) 신평남은: 팽나무는.

32) 육고비: 젓부기 삼형제와 너사무너도령 삼형제가 의형제로 서로 결연하였음을 상징하는 종이 무구로 당주에 걸어둠.

33) 솥솥도리: 솥들이.

34) 빗전: 붙여서.

35) 초뻔: 첫 번째는.

36) 냉기고: 남기고.

37) 신이성방: 심방을 일컫는 말.

38) 차지는: 차지는.

출릴³⁹⁾ 쏘이⁴⁰⁾ 엇언⁴¹⁾ 농이왓⁴²⁾ 콧씨⁴³⁾ 들런 제인 들어 제인장젓(--長者-)집 만연 들어 만연장젓집이~ 쏘 훈 뉘(升)를 빌레 가난~, 데미(大米) 쏘엔 데몰레⁴⁴⁾ 소미(小米) 쏘엔 소몰레를 서터주난~,⁴⁵⁾ 집에 오란 초불, 두 불, 제삼 불~⁴⁶⁾ 싯쳐⁴⁷⁾ 농곡 밥 훈 상을 출런 천지왕님 전(前)에 올리난에~ 천지왕님 첫 수꾸락에⁴⁸⁾ 머흘이⁴⁹⁾ 맥힙데다.⁵⁰⁾

“총명부인님아~, 정성(精誠)은 들엇우다만은 허데, 어떻게연~⁵¹⁾ 첫 수꾸락에 머흘이~ 맥힙 네가?”

“그게 아닙네다~. 우리 고을에 천하거부제(天下巨富者) 잘사는 제인 들어 제인장제 만연 들어 만연장젓 집이~ 쏘 훈 뉘 빌레 가민, 엇인 사름덜~⁵²⁾ 가민 묵은 곡식(穀食) 꾸어 주영 세(新) 곡식으로 반곡~, 데미 쏘엔 데몰레~, 소미 쏘엔 소몰레를 서터 놓고, 뉘 알엔⁵³⁾ 굿인 쏘을 놓고~ 뉘 우인⁵⁴⁾ 좋은 쏘을 놓앙, 꾸어 줄 떤 까강⁵⁵⁾ 꾸어 주고 받을 떤은 뉘 소복⁵⁶⁾ 받읍네다. 나도 쏘 훈 뉘 빌어다근⁵⁷⁾ 초불, 두 불, 제삼 불을 싯천~ 밥 훈 상을 출렛우덴.”⁵⁸⁾

허난,

“이 밥이랑 나 두에~ 일천(一千) 명에 저 군스(軍士)~ 삼천(三千) 명에 오천(五千) 명에 저 군졸(軍卒) 시식걸명법을⁵⁹⁾ 마련헉서~.”

총명부인님 시식걸명법을 마련헤여두고~, 초경(初更), 이경(二更), 삼경(三更) 깊은 밤을 지세웁네다~. 돛날⁶⁰⁾ 아적~⁶¹⁾ 천지왕님이 옥항(玉皇)더레 올라 가젠 허난~ 총명부인님 곤는⁶²⁾ 말이,

“천지왕님아~, 간밤에~ 벤 애기~ 이름이나 지와 두영⁶³⁾ 갑센.”⁶⁴⁾

허난,

“아덜 성제(兄弟) 나건들랑~ 먼저 난 건 데별왕~, 말저⁶⁵⁾ 난 건 소별왕 이름 지웁서. 톨도

39) 출릴: 차릴.

40) 쏘이: 쌀이.

41) 엇언: 없어서.

42) 농이왓: 바가지.

43) 콧씨: 박씨.

44) 데몰레: 큰 모래(沙).

45) 서터주난: 섞어서 주니.

46) 초불 두 불 제삼 불: 초벌, 두 벌, 세 벌.

47) 싯쳐: 씻어.

48) 첫 수꾸락에: 첫 손가락에.

49) 머흘이: 돌이나 모래가.

50) 맥힙데다: 먹었습니다.

51) 어떻게연: 어떻게 해서.

52) 사름덜: 사람들.

53) 알엔: 아래에는.

54) 우인: 위에는.

55) 까강: 깎아.

56) 소복: 수복히.

57) 빌어다근: 빌어다가

58) 출렛우덴: 차렸다고

59) 시식걸명법을: 제사 끝난 뒤에 제상의 각 제물을 조금씩 떠다 집으로 들어오는 어귀인 올레나 문밖 에 던져 잡신(雜神)을 사귀는 일을.

60) 돛날: 뒤통.

61) 아적: 아침.

62) 곤는: 말하는.

63) 지와 두영: 지워 두고.

64) 갑센: 가십시오.

65) 말저: 나중에.

성제 나건들랑~ 먼저 난 건 데털왕~, 말저 난 건 소털왕 이름 지왕, 아방을⁶⁶⁾ 좇이걸랑~⁶⁷⁾ 농이와 궂씨 세 방울~ 주명 삼진 정월(正月) 정해일(丁亥日) 정해일 첫 돛날⁶⁸⁾ 이 궂씨를 심 영~ 훈 궂줄랑 지붕더레⁶⁹⁾ 줄이 번곡~, 훈 궂줄랑 땅더레~ 발이 번으건, 아방국을 좇앙⁷⁰⁾ 보 냅센.”

해연 천지왕님은 옥항더레 올르옵데다예~.

총명부인님~ 벤 애긴 나난 아덜 성제(兄弟) 납데다~.⁷¹⁾ 먼저 난 건 데별왕~, 말저 난 건 소별왕 이름 지왕구나~. 훈 설⁷²⁾ 두 설 예시일곱(六七) 설 넘어가니, 아방국도 ㄷ뵤간다.⁷³⁾ 어멍 국도 ㄷ뵤간다. ㅎ를날은~⁷⁴⁾ 소별왕이 곤는 말이,

“설운⁷⁵⁾ 나 성님(兄-)아~, 읍서.⁷⁶⁾ 우리 수치 꺼깁~⁷⁷⁾ 이기걸랑 이긴 사람 이싱 어멍 츠지 허고, 진 사름은 저싱 아방 츠지허게마씨~.”

“어서 기영 허렌.”⁷⁸⁾

“설운 나 성님아, 어떤 낭은⁷⁹⁾ 동지(冬至) 섯돌~⁸⁰⁾ 설한풍(雪寒風) 백눈(白雪) 우에 입이⁸¹⁾ 떨어지고~, 어떤 낭은 동지 섯돌 설한풍 백눈 우에 입이 아니 떨어지옵네까?”

“설운 나 동싱(同生)아~, 모른 소리 말라. 속이 텅텅 읍은⁸²⁾ 남은~ 입이 아니 떨어지고 속 이 굴인⁸³⁾ 남은 입이 떨어진다~.”

“설운 나 성님~, 모른 소리 맙서. 머구낭광⁸⁴⁾ 가시낭은⁸⁵⁾ 속이 텅텅 읍아도~ 입이 떨어지 곡, 왕데(竹) ㄴ작은⁸⁶⁾ ㄴ디ㄴ디~ 굴어도 입이 아니 떨어지옵네다.”

데별왕이 수치 꺼깁 지엿구나~.

“설운 나 성님아~, 어떻게난 동산에 메(묘)는 쫄르고~,⁸⁷⁾ 굴렁에~ 메는 집네까?”⁸⁸⁾

“설운 나 동싱아~, 비가 오민 동산에~ 건물이⁸⁹⁾ 땅 알더레⁹⁰⁾ 떨어지난~ 동산에 메는 쫄라 지고~, 굴렁에~ 메는 물을 먹으난 메가 질어진다~.”

“설운 나 성님, 모른 소리 맙서~. 우리 인간의~ 머리가 지중⁹¹⁾ 우에라도~ 쉬흔데 자 수페머

66) 아방을: 아버지를.

67) 좇이걸랑: 찾거든.

68) 첫 돛날: 첫 돼지날.

69) 지붕더레: 지붕으로.

70) 좇앙: 찾아서.

71) 납데다: 낳았습니다.

72) 훈 설: 한 살.

73) ㄷ뵤간다: 다톤다.

74) ㅎ를날은: 하루는.

75) 설운: 서러운.

76) 읍서: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흔히 서두에 쓰는 표현.

77) 수치 꺼깁: 수수께끼 내기를 하여.

78) 기영 허렌: 그렇게 하라고.

79) 낭은: 나무는.

80) 섯돌: 선달 음력 12월.

81) 입이: 잎이.

82) 읍은: 속이 여문.

83) 굴인: 속이 빈.

84) 머구낭광: 머귀나무와.

85) 가시낭은: 가시나무는.

86) ㄴ작은: 마디(節)는.

87) 쫄르고: 짧고.

88) 집네까: 깎니까.

89) 건물이: 거꾸로 흐르는 물이.

90) 알더레: 아래로.

리 집네다~.”

데별왕이 수치 꺼꺼 지었구나.

“읍서. 우리 꽃씨나⁹²⁾ 심영 꽃빈장이나~⁹³⁾ 헤여 보게.”

“어서 기영 허라~.”

데별왕은 은수반(銀小盤)에~ 꽃씨 들이치난, 불리도 웨 불리⁹⁴⁾ 똥~ 불리 난 딴⁹⁵⁾ 송에⁹⁶⁾ 나고~, 송에 난 딴 가지 번고~, 동(東)더레 번은 가지, 서(西)더레 번은 가지, 남(南)더레 번은 가지, 북(北)더레~ 번은 가지, 중앙(中央)더레 번은 가지~ 스만오천육백(四萬五千六百) 가지가 똥엿구나. 동은⁹⁷⁾ 뭇이난⁹⁸⁾ 꽃은 피었구나~. 종지만씩, 사발만씩~, 낭푼만씩⁹⁹⁾ 동청목(東靑木)은 서백금(西白金), 남적화(南長壽)는 북화수(北黑水)로구나. 혼번 보민 철년(千年)을 살 듯~, 혼번은 보민 말년(萬年)을 살 듯~, 번성(繁盛)꽃, 환생(幻生)꽃, 생불(生佛)꽃, 가지꽃, 불리꽃이 똥엿구나~.

소별왕이 은수반에 꽃씨를 들이치난, 불리도 웨 불리, 불리 난 딴 송에 나고, 송에 난 딴 가지 번었구나~. 동은 뭇영 꽃은 핀 건 보난 검뉴울꽃이¹⁰⁰⁾ 똥어지난,

“읍서. 우리 이몽성에 깊은¹⁰¹⁾ 즘을 자게~.”

“어서 기영 허라.”

데별왕은 이몽성에 깊은 즘을 자고, 소별왕~은 여시 즘을¹⁰²⁾ 자앗구나. 소별왕이 먼저 일어나난,

‘나 앞에 꽃사발은 성님 앞더레¹⁰³⁾ 놓고, 성님 앞에 꽃 사발은 나 앞더레 놓앗구나.’

“설운 나 성님아, 즘은 무신¹⁰⁴⁾ 기영¹⁰⁵⁾ 깊은 즘을 잠이우꽈?¹⁰⁶⁾ 일어납~서.”

일어난 보난~,

‘꽃사발이~ 서로 바꿨구나예~.’

꽃사발이 서로 바꾸난~, 데별왕이 곤는 말이,

“나 동싱아, 널로부터 응큼헌 짓 허엿구나. 널랑 이싱 어멍 츠지허라. 날랑 저싱 아방 츠지허마~. 이싱 살젠 허민 살인(殺人), 역적(逆賊)~, 도둑, 방화(放火) 만허리라~.¹⁰⁷⁾ 남자 열다섯~ 넘어가민 늬이¹⁰⁸⁾ 여자 조름¹⁰⁹⁾ 쫓앙 땡기고, 여자 열다섯 넘어가민~ 늬이 남자 조름 쫓앙 땡기리라.”

91) 지중: 가장.

92) 꽃씨나: 꽃씨나.

93) 꽃빈장이나: 꽃구경이나.

94) 웨 불리: 외 뿌리.

95) 딴: 데는.

96) 송에: 송이.

97) 동은: 금방 맺기 시작한 열매는.

98) 뭇이난: 맺으니.

99) 낭푼만씩: 나무푼주만큼. ‘푼주’는 아가리는 넓고 밑은 좁은 너부죽한 그릇을 말함.

100) 검뉴울꽃: 시들어가는 꽃.

101) 깊은: 깊은.

102) 여시 즘을: 충분하지 못한 잠. 깊이 들지 아니한 잠.

103) 앞더레: 앞으로.

104) 무신: 무슨.

105) 기영: 그렇게.

106) 잠이우꽈: 잡니까.

107) 만허리라: 많으리라.

108) 늬이: 남의.

109) 조름: 꿈무니 뒤.

저상법은 주년 날~ 춤실 7튼 법이로구나. 이싱농장법이로~ 마련헤니, 삼진 정월 정해일~ 첫 돛날에 천지왕님 준 농이악 곡씨~ 세 방울을 싱그란에,¹¹⁰⁾ 훈 곡줄은 지붕더레 줄이 벌고, 훈 곡줄은 땅더레~ 발이 벌으난, 법으로써 오늘까지~ 우리 제주도는 삼진 정월 정해일 첫 돛날에 천제 국제~ 포제법(酬祭法)이 마련이 되었우다. 데별왕~, 소별왕이 노각성 조부연줄로~¹¹¹⁾ 옥항더레 올라가단 보난, 높은 낭에 세 짐승에 말을 곤곡~, 만물 풀잎십세가¹¹²⁾ 말을 곤곡~, 기어댕기는 길짐승에 말을 곤고,¹¹³⁾ 우리 인간이 말을 허고 보난, 구신(鬼神) 불러 생인(生人) 대답이요. 생인 불령 구신 대답허니~, 혼돈(混沌)이 세계가 뒤난 세피 7루¹¹⁴⁾ 석 섬닷 말 칠 세 오 리~ 갖디다근¹¹⁵⁾ 허공더레 뿌리난~, 세 짐승도 말문 닫안 이녁끼리 통역(通譯)허고~, 만물 풀잎십세도~ 말문을 닫안 이녁끼리 통역허고, 길짐승도 말문을 닫안~ 이녁끼리 통역허난, 우리 인간만 말을 주고 받게 허십데다. 그 법으로 신청에 가르메법~¹¹⁶⁾ 마련헤영 두고, 옥항 올라가니 용에 용상(龍床) 잇입데다~. 용상 우에 올라 타난 용이 용상이~ 우루릉 우루릉 올라가니,

“이 용상아, 저 용상아, 아방 타던 용상이로구나~.”

용이 뿔~ 훈짜¹¹⁷⁾ 끊어당 하늘 천저(天帝)님은 연구름을 타는 법입네다. 태국(泰國)의 천저님은 코끼리 용상 타는 법입네다. 우리나라 왕은 용이 용상 타는 법을~ 마련허십데다.

데별왕이 천양(天下) 알을 굵어 보난~, 낮인 뒤난¹¹⁸⁾ 해가¹¹⁹⁾ 둘이 떠올르난~ 인간 세상에 만민(萬民) 백성(百姓)덜이~ 더워근 좇아¹²⁰⁾ 죽곡, 밤인 뒤난 둘이¹²¹⁾ 두 게(個) 뜨니 인간 세상 만민 백성덜이~ 추워 곳아¹²²⁾ 죽게 뒤어가니~, 데별왕이 천(千) 근 들어 활 훈 데~ 백(百) 근 들어 쌀(矢) 훈 데를 들런, 앞에 오는 해 하나 맞청~ 해 하나 쟁겨두곡~,¹²³⁾ 뒤에 오는 해 하나 쏘아다근 동이 와당에 진도받지고~,¹²⁴⁾ 앞이 오~는 둘 훈 나 쟁겨두곡, 뒤에 오는 둘 하나 받쳐다가~ 서에와당¹²⁵⁾ 진도받지난, 요 하늘엔 해도 하나~, 둘도 하나 떠올데다.

하늘 차지는 천지왕님~, 땅 차지는 지부왕님, 데별왕은 저상법~, 소별왕은 이싱법~, 남정중화정네(南正重火正黎法)~¹²⁶⁾ 마련허니 인충도 삼백이고, 묘충도 삼백이고, 비충도 삼백이고~ 만물이 영장은 인간입다~. 삼십삼철(三十三天) 도솔천왕(兜率天皇)님도 도업입네다에~.

110) 싱그란에: 심으니.

111) 노각성 조부연줄로: 하늘에 오르내리는 길로서 잡고 오르내리는 줄로.

112) 풀잎십세가: 여러 종류의 풀이.

113) 곤고: 말하고.

114) 세피 7루: 송피(松皮) 가루.

115) 갖디다근: 가져다가.

116) 신청에 가르메법: 제청을 가리는 법.

117) 훈짜: 한짝.

118) 뒤난: 되니.

119) 해가: 해가.

120) 좇아: 뜨거움이나 더위에 못 견디는 상태를 말함.

121) 둘이: 달이.

122) 곳아: 추워.

123) 쟁겨두곡: 섬겨두고.

124) 진도받지고: 떨어뜨리고.

125) 서에와당: 서쪽 바다.

126) 남정중화정네법: 『사략(史略)』 전옥(顓頊) 고양씨(高陽氏) 항목에서 따온 것. 여기서는 남정중의 예법 또는 다툼의 분한을 구별하는 법.